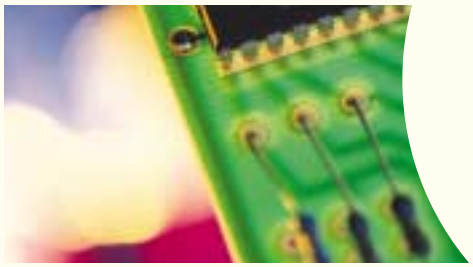


ITSoC network

– 글로벌 지식강국을 만들어가는 IT 기술혁신 선도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www.iita.re.kr

'06년 선도사업 신규/계속과제 협약 완료

2006년도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IT SoC/부품/융합 31개 과제(신규 22, 계속 9, 정부출연금 740억)에 대한 협약을 4월말에 완료하였다. 각 대상과제의 협약을 위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IT SoC 및 부품전문위원실과 과제책임자가 함께 마일스톤 및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였다. 특히 과제 진행과정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핵심연구결과로써 분기당 1개씩 연 2~3개로 설정하였고,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은 핵심성과 위주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것으로 하여 마일스톤 종료시점에서 핵심결과의 성공여부 판단시 참고할 만한 수치값/기준값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 협약의 목적은 대상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IITA PM실과 과제책임자 간의 권리 ·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 문의 : 장선호 기술역(042-710-1181), 이민경 연구원(042-710-1182)

IITA, 3월부터 'we-cademy' 실시

IITA(원장 김태현)는 지난 3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직원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내부강의제인 '위카데미(We-cademy)'를 실시하고 있다. 위카데미(We-cademy)는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는 물론 직원들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각종 지식에 대해 직원이 직접 강의하는 제도로 Wednesday(수요일)과 Academy(아카데미)의 합성어다. 위카데미는 별도의 예산없이 자체 인력만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학습방법이다. 김태현 원장은 "최근 사회가 글로벌 지식경영을 중시하면서 인재육성이 중요해졌다"면서 "앞으로 진흥원은 직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교육방법을 통해 내부역량을 축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IITA는 이미 '보도자료 작성법', '정보조사분석 방법', '나도 자동차 전문가' 등을 주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카데미를 실시했다.

u-IT839 IT SoC/융합/부품 분야 2006년 연구개발 목표

u-IT839 성장동력중 IT SoC/융합/부품 분야의 2006년도 목표는 '휴대단말용 저전력 영상/그래픽 처리 핵심칩 개발'과 '유비쿼터스 실감통신, 디지털 헬스 및 환경/안전 기반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취약분야인 IT부품 · 소재산업을 집중 연구개발함으로써 IT산업 파급효과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2005년도 상반기 IT SoC/부품/융합 과제 통합점검

2006년도 선도사업 IT SoC/융합/부품 과제 34개와 E-0580 과제 22개에 대한 상반기 과제성과 통합점검은 6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인원은 전문위원실에서 과제별로 방문계획을 수립한 후 PM, 기술역 외 연구원 2명 내외로 구성된다. 본 통합점검은 각 과제수행기관에 현장방문하여, 상반기 핵심성과, 목표달성도 체크 및 지난 협의확인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총점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현황을 확인하고, 연구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반기 과제연구의 진행방향을 고려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문의 : 이상호 연구원(042-710-1183), 임문혁 연구원(042-710-1184)

2006년도 정보통신 기술수준조사 추진

정보통신부와 IITA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이를통해 2006년도 과제발굴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중이다. 조사대상은 u-IT839 전략의 9대 신성장동력분야이다. 3월 중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장동력의 요소기술별 평가전문가를 5인 이상 배정하였으며, 4월 중순 본설문조사를 통해 각 요소기술별로 기술수준(상대수준, 격차)와 기술적 중요도(중요도,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였다.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기술분야별 패널리스트를 선정하여 각 기술분야 본설문 결과를 분석, 정리하고 기술수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IT SoC 및 부품 전문위원실에서는 IT SoC/부품과 IT 융합 2개 분야 기술수준조사를 추진한다.

■ 문의 : 임진양 연구원 (042-710-1049), 이상호 연구원(042-710-1183)

TI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연구소 국내 유치

정보통신부와 IITA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TI(Texas Instruments)의 차세대무선통신연구소'를 유치했다. 3월 2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IITA 김태현 원장, TI 아시아의 테리 청(Terry Cheng) 사장, TI 코리아 손영석 사장 등이 참석 했다. TI R&D 센터는 IITA 및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TI 제품에 기반한 다양한 차세대 모바일 멀티미디어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한국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T SoC 산업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IT-SoC협회

www.itsoc.or.kr

IT-SoC협회 제3차 정기총회 개최

IT-SoC협회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3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모인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제2대 IT-SoC협회 회장사 선출, 정관변경 및 2005년도 사업결과 보고와 감사보고 그리고 2006년도 사업계획 보고 등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IT-SoC협회 황종범 사무총장의 2005년도 사업결과와 2006년도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으며 양 안건 모두 회원사의 별다른 이견없이 승인되었다. 또한 제2대 IT-SoC협회 회장으로는 코아로직 황기수 사장이

단독후보로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제2대 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식후 행사로 초대회장직을 역임한 송문섭 전 협회장(팬택 고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IT-SoC협회 제2차 이사회 개최

IIT-SoC협회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코엑스 오크우드호텔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황기수 협회장(코아로직 대표이사)을 비롯하여 신임 이사진들이 모인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회장 및 감사 그리고 사무총장 선임 등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부회장 및 감사,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위촉하게 되어있다.

황기수 협회장은 신임 수석 부회장으로 티엘아이 김달수 사장과 부회장으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박창일 사장을 위촉하였으며 이사진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었다.

또한 감사로는 인티그런트테크놀로지즈의 고범규 사장을 위촉하였으며 사무총장에는 현임 황종범 사무총장을 재임토록 하였다.

2006년도 해외 유망 IT 전시회 지원 사업

– IIC China 2006 전시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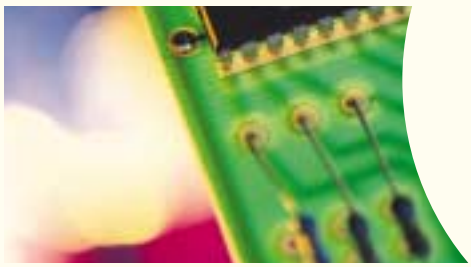
IT-SoC협회는 회원사 10개 업체와 함께 지난 3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IIC China 2006에 참가했다. IT-SoC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회원사의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시 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전 홍보 활동에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전시회 기간 동안 136건의 상담으로 수출상담액 800만 달러의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씨앤에스테크놀로지, 엠씨에스로직, 픽셀칩스 등은 계약 상담 18건, 총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IT-SoC협회 황종범 사무총장은 "중국 업체들에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우리 회원사들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업체는 부스임차비 100%와 장치비 60% 등 금전적인 지원과 사전 홍보 활동 등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06년 1차 전문협의회 개최

IT-SoC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SoC분야 3개 전문협의회 간담회가 지난 3월 21일 정보통신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오전에 열린 SoC임가공 및 부품 전문협의회에서는 외국근로자 고용확대 방안 등 요청사항과 함께 테스트인력양성교육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테스트인력양성교육은 2005년도 진행된 간담회의 주요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던 SoC업계의 테스트인력부족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IT-SoC사업단에서 지난 3월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오후에 진행된 통신SoC 및 DMB/DTV부품 전문협의회에서는 SoC업체와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업체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SoC, ASSP 등 하드웨어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들 칩에 내장되는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 비중과 복잡도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 품질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SoC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모델도 제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ITSoC network

– IT SoC 산업육성의 견인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IT-SoC사업단

www.asic.net

SoC 테스트엔지니어 교육과정 신설

SoC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SoC 칩 시제품 및 양산을 위한 테스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IT-SoC사업단은 3월 13일부터 12주에 걸쳐 '테스트 개발 엔지니어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SoC 테스트엔지니어 교육과정'은 총 12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분야별 교육과정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현장실무에 가까운 교육을 위하여 현재 테스트 전문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테스트엔지니어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교육과정은 테스트 프로세스 플로우에 대한 설명, 테스트 프로그램 작성, 각종 테스트 방법 및 장비 운용 실습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과정 수료후 바로 현장투입이 가능한 테스트 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었다. 또한 SoC 설계기업 및 테스트관련 기업의 인력뿐만 아니라 SoC 테스트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이공계 혹은 타분야의 인력을 SoC 분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IT-SoC사업단은 SoC 설계기업의 칩 개발이 활성화로 개발제품에 대한 기능 검증, 테스트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개발, 양산 제품에 대한 불량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테스트 전문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 SoC 설계기업 및 테스트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획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SoC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맞춤화된 교육과정을 기획 및 운영할 계획이다.

IT-SoC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테스트엔지니어 교육과정 수강생들은 4월 20일에 경기도 이천 Hynix 반도체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테스트 1위 기업인 iTEST를 방문, 견학하여 실제 테스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006년 1차 SoC 시제품 개발지원, 12종 선정

IT-SoC사업단은 차세대 이동통신, DMB, DTV 등 고기능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IT SoC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13개사로 부터 14종을 신청 접수하였으며 29일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2개사의 12종을 최종 선정하였다.

신청 접수 결과 0.18㎛ 이하 공정이 7종으로 전체 신청의 50%를 차지하여 점차 최소 미세공정을 이용한 SoC 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SoC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수시 신청 접수를 통해 매분기별(3월, 6월, 9월) 심의 선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2차 심의 선정은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6월 15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단은 2006년 IT SoC 시제품 개발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월에 동부일렉트로닉스, 매그나칩반도체, 삼성전자 등의 국내 파운드리사와 IT SoC 개발업무약정 체결을 추진한 바 있다.

2006년 1차 SoC 신뢰성 시험 지원, 17종 선정

IT-SoC사업단은 SoC 개발 중소기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3월말까지 2006년 1차 SoC 신뢰성 시험 지원 신청을 받아 22개사로부터 24종이 접수되었으며, 심의 결과 17종을 선정하였다. 한편 시험용역기관으로는 KOLAS인증 시험기관인 (주)큐알티 반도체가 선정되어, 4월 15일부터 1차 심의를 통해 선정된 17종에 대한 신뢰성 시험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HTOL(High Temperature Operating Life test) 등의 온도 · 습도 환경시험, 수명시험, ESD시험, Latch-up시험 등 13개 시험항목에 대한 신뢰성 시험이 진행되고 1건당 총 시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시험완료 후에는 KOLAS인증 시험성적서와 결과서가 발급된다. 2006년 2차 신뢰성시험 지원은 7월 31일까지 수시 접수를 받아 8월 15일에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IT-SoC사업단에서는 IT-SoC산업센터에 구축된 시험실을 통해 SoC의 전기적특성시험 및 불량분석시험도 지원하고 있다.

www.asic.net

특히 300만원으로 일괄 부과되던 시제품 시험비용을 2006년 3월부터 핀수 및 동작 주파수에 따라 Grade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비용을 차등과금하고, 소량의 양산품은 일반 시험전문업체 시험비용의 85%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SoC 중소기업의 시험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다.

IT-SoC사업단, ETRI로 조직이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IT-SoC사업단은 IT산업의 집중육성, IT부품 · 소재 연구개발 강화 등 정보통신부의 "IT부품 ·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의거하여 2006년 5월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IT부품융합연구소의 IT-SoC산업진흥센터(가칭)로 조직 이관될 예정이다.

2006년 SoC 개발실습프로젝트 90개 과제 협약 체결

지난 4월 14일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SoC 개발실습프로젝트 과제 90개에 대한 협약을 송파구 가락본동에 있는 IT-SoC사업단에서 체결하였다. 세부적으로 2006년도에는 전공실습프로젝트 71개, 설계실습프로젝트 19개, 과제 협약을 체결하였고 산학협력프로젝트 2개 과제 협약을 추진하고 있어, IT-SoC전공인증과정 석 · 박사 학생 700여명이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IT SoC 개발실습프로젝트는 IT-SoC전공인증과정의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SoC 논문 연구에서 IP 기초 설계, 상용화를 전제로 한 SoC칩 구현에 이르기까지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전공실습프로젝트, ▲설계실습프로젝트, ▲산학협력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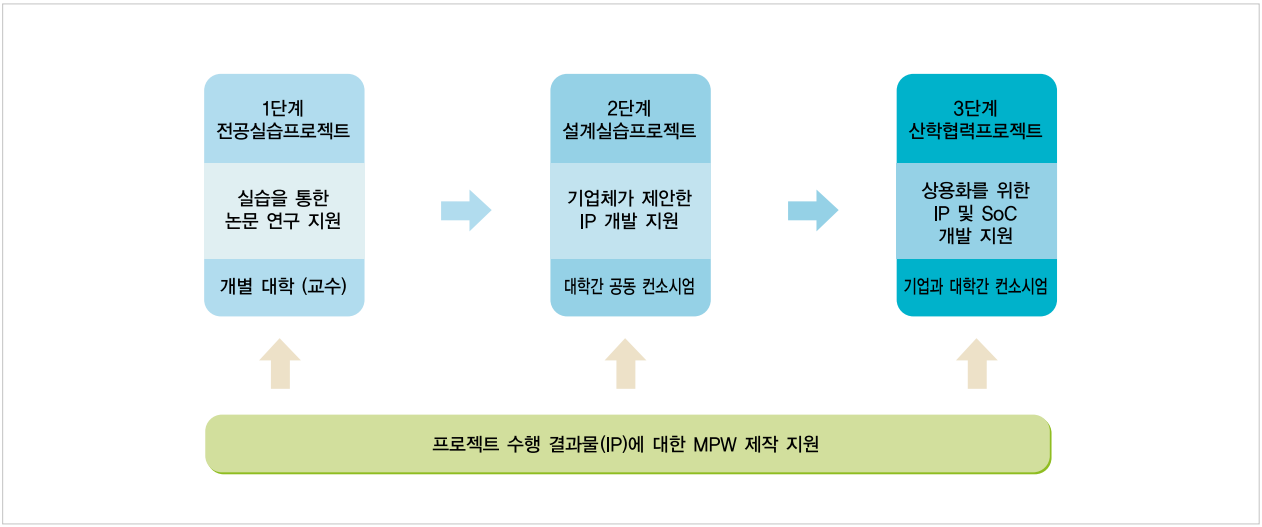
IT-SoC사업단 박장현 단장은 "IT-SoC전공인증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석 · 박사 학생들은 전공인증 교과목, 설계특론 이수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 IP개발, 특허 출원, 논문 연구, MPW 제작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SoC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핵심적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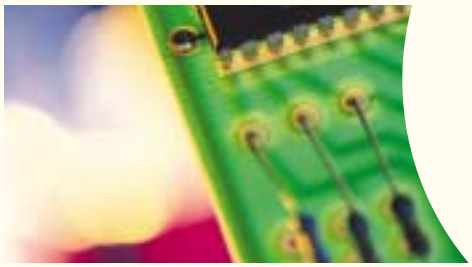
현재 IT-SoC전공인증과정에는 SoC 전공과 관련된 59개 대학, 405명의 교수, 1677명의 석 · 박사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까지IT-SoC전공인증서를 수여받은 SoC 설계 인력 270여명을 양성하였다.

♣ IT-SoC전공인증과정이란?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SoC 설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과정이다.

국내 59개의 SoC 관련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IT SoC 석 · 박사 교육과정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설계실습 경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SoC 이론을 다지기 위한 IT-SoC전공인증과정의 전공교과목과 산업체 시스템 기반의 실습을 위주로 진행되는 동 · 하계 설계특론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ITSoC network

– IT SoC 핵심 연구소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etri.re.kr

ETRI 모바일 RFID 보안기술 "세계서도 큰 호응"

– ITU-T 전시회서 호평, 국제표준화 급물살

–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보호 앞장 가능길 터

본격적인 RFID 시대 개막을 앞두고 RFID의 상용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방지기술 개발로 개인 정보가 더욱 보호될 전망이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임주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는 "모바일 RFID 보안기술"이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RFID 서비스가 모바일쪽으로 진행되면 B2B에서 B2C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보안 및 프라이버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ETRI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ITU-T 워크샵에서 "모바일 RFID" 보안기술을 소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와 동시에 국제 표준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TRI가 개발한 모바일 RFID 보안기술은 "휴대폰 등 모바일 단말기에 900MHz 대역의 RFID 리더를 외장형태로 장착, 안전한 RFID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S/W기술과 기반 연동기술"로서 본 연구를 통해 보안 요소기술들과 인증, 위치추적보안 등의 모바일 RFID 보안 기술을 개발, 서비스의 불법적 이용 및 RFID 태그 정보의 위변조 방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향후 가능케 되는 기술이다.

ETRI는 또한 정보보호연구단 정교일 그룹장 및 IT기술이전본부 표준연구센터 김형준 팀장과 김용운 선임연구원 등 모바일 RFID 전문가들이 워크샵에 참석,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 RFID의 제반 기술 및 보안기술에 대하여 주제 발표와, 정보보호연구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RFID보안 플랫폼기술에 대한 소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ITU-T의 표준화관련 자문위원회 성격인 티색(TSAG)회의에서도 RFID의 네트워크 관점에서 표준화 방안 및 보안 기술 표준화 방안이 심도있게 다뤄졌다고 ETRI는 밝혔다.

ETRI 정보보호연구단의 정교일 그룹장은 "RFID기술과 모바일기술을 접목시켜 B2C 모델로 확장한 본 기술은 향후 RFID 신규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프라이버시보호 및 정보보호기술을 국제표준에 한 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TRI는 실제 모바일환경에서 연동 수준까지 개발한 기술을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전시함과 동시에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RFID 세계시장에서 국내업체의 위상 강화 및 시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이 강한 경쟁력을 갖춘 모바일 기술에 향후 RFID기술을 접목시켜, 국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신규시장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SoC설계의 핵심요소인 IP설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반도체설계자산연구센터

www.sipac.org

SIPAC, 한국-홍콩 IP DB 공유

중국의 CSIP와 SSIPEX, 일본의 IPTC, 홍콩의 HKSTP 등, 각국에 설립된 반도체 IP 유통센터는 자국에서 개발한 IP를 국외에 소개하기를 원한다. 이에, SIPAC은 각국의 IP DB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로가 보유한 카탈로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반도체 IP 카탈로그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SIPAC은 2005년 11월 실시간 정보 공유 소프트웨어인 SyncIP(㈜시스템센트로이드 개발)를 설치하여 KETI IPCoS와의 IP 카탈로그 정보 공유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HKSTP (Hong Kong Science & Technology Parks)와의 IP 공유, 최근 KIPA IT-SoC 사업단과의 IP 정보 공유를 완료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Asian IP/SoC 미팅 등을 통해 CSIP, IPTC 등 아시아 각국의 IP 유통센터와의 IP 공유도 추진 중에 있다.

※ HKSTP, IPCoS, IT-SoC 사업단에 등록된 IP 카탈로그 정보를 SIPAC 웹사이트(www.sipa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차 SIPAC IP 유통시스템 OPEN

쉽고 편리한 IP 유통 및 관리를 위해 2001년 12월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IP 유통시스템(http://www.sipac.org)에는 현재 약 2000건의 국내외 IP가 등록되어 있으며, IP Catalog 서비스를 중심으로, IP 검증 및 평가시스템, IP/SoC Expert 서비스, IP 거래중개 및 계약서 제공, Wish IP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IPAC은 IP 유통시스템 사용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여 지난 3월 오픈 하였다. 이번 IP 유통시스템 5차 개발에서는 기존의 IP 등록정보를 좀더 세분화하여 IP에 대한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색시스템 또한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검색을 위해 검색조건을 다양화, 세분화하였다. 또한 IP DB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들과의 IP DB 공유를 통해, 타 기관에 등록된 IP 카탈로그 정보를 다양한 조건에 의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IP/SoC Expert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기 구축된 IP 유통시스템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 편의성을 우선시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였다.

SIPAC IP 유통시스템은 향후 6차 개발을 통하여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 IP 유통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SoC Robot War 2006의 참가팀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 4월1일부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SoC Robot War의 접수가 시작되었다. 접수는 이달 말까지이며 대회 종목은 SoC Tank(탱크) Robot, SoC Taekwon(태권) Robot 으로 나뉜다. SoC Tank Robot은 레이저포를 장착한 탱크형태의 로봇으로 상대로봇을 향해 포를 쏘아 적중, 에너지를 감소시켜 로봇을 파괴시키는 경기이며, Taekwon Robot은 2족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상대로봇을 넘어뜨리거나,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상대를 때려 점수를 획득하는 경기이다.

지능형 SoC Robot War 2006의 참가팀 접수는 로봇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 참가신청 안내
- 참가신청 접수일정: 2006년 4월 1일 ~ 5월 31일
- 참가자격: 대학(원)생으로 2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된 팀
- 대회종목: SoC Tank Robot, SoC Taekwon Robot (중복출전 가능)
- 접수방법: 홈페이지(http://www.socrobotwar.com)
- 출전자격 TEST: 7월 – 예선경기 9월
- 본선경기 11월
- 문의 Tel. 042-869-8929, Fax. 042-869-8930
  E-mail: socrobotwar@sipac.org
  Web-site: www.socrobotwar.com

2006 Ubiquitous Fashionable Computer 경진대회

2005년 한국차세대PC학회와 함께 SIPAC에서는 입는 컴퓨터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경진대회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한바 있다. 올해도 2회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다. 예선 통과팀에게는 작년 수준 이상의 제작지원금이 지급되며 Wearable PC 패션쇼의 무대에 함께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참가신청 안내
- 참가신청 접수일정: 2006년 5월 31일까지
- 참가자격: 대학(원)생으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된 팀
- 접수방법: 홈페이지(http://www.ufcom.org) 에서 기획서 첨부 신청
- 예선: 6월-서류통과팀 발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본선진출팀 선발
- 본선:10월-워킹 목업을 통해 기능심사실시, 11월-무대공연
- 문의 Tel. 042-869-8937, Fax. 042-869-8930
  E-mail: wpc@sipac.org
  Web-site: www.ufcom.org